

産·官 防産 정책간담회 개최

— 전환기의 방위산업 정책방향 모색 —

「군사력 준비에 따른 방위산업 정책방향 전환」을 주제로 한 産·官의 防産정책 간담회가 9월 25일 국방부 제1회의실에서 權寧海 국방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관과 鄭秀烈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 회장을 비롯한 방산업체 대표 등 60여명의 관련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국방비의 적정소요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質위주의 군사력 건설을 추진해야 하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우리의 방위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간담회는 총3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주요 발표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및 연구개발 투자확충이 곤란하며, 장병복지 개선과 우수자원의 획득 및 유지도 곤란하고, 수리부속 적정 보급수준이 크게 미달되어 장비운영이 곤란하게 될 것입니다.

* 閔 晟 基 국방부 과장

국방부는 기술 안보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적 무기체계의 개발 및 국방 연구개발기관의 확대와 업체주도 연구개발로의 전환을 통해 범국가적 국방연구개발 체제의 구축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방산업체 육성정책 방향도 보호 육성 중심에서 기술개발 촉진체제로 전환키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기술중심의 전문 계열화 체제 재정비, 신규사업 착수시 적정 생산설비 투자 유도, 성능개량, 차세대 장비개발을 연계한 사업의 연속성 유지, 민수·군수 공용 기술품목의 중점개발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방산업체가 당면하고 있는 방산전용(防産專用) 유희(遊休) 생산설비 유지대책을 적극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부 : 군사력 정비방향 및 정책추진방향

* 吳 鉉 九 합참 과장

향후 군사력 정비의 기본 방향은 전쟁억제 효과가 큰 핵심전력, 주한미군 감축 및 역할변경에 따른 대체전력, 주변국 위협에 대한 대응전력을 중점적으로 증강하고, 부대구조

또한 인력위주에서 무기 중심의 기술집약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權 永 憚 국방부 과장

적정 국방비가 확보되지 못하면 既투자 비용이 낭비소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인건비, 물가상승, 환차보전등 생산단가 상승으로 실질 전력증강은 더욱 감소됩니다. 이와함께 방산업체의 기반약화

제2부 : 재래식 병기 생산업체 당면 애로

* 李 海 龜 기아기공 상무이사

- 현안문제
- 개량포 사업종결로 급격한 매출 감소
- 자주포 무장 적도입에 따른 국내생산 불가
- 전차 砲架 국산화 완료/ 미납중
- 업종전환에 상당기간 소요
- 대정부 건의
- 전차용 포가의 국산화 사용
- 신규사업 조기 확정

* 金 基 文 풍산 상무이사

• 현안문제

- 防産 유희인력 감원 불가피
- 방산전용시설 유희화 가속, 시설유지
- 원가상승에 따른 손실보전(불가)
- 대정부 건의
- 민수전환등 자구책 강구를 위해 일정기간 급격한 조변 감소 지양
- 급격한 조변감소시 방산특조법상의 지원

* 趙 東 虎 삼양화학 전무이사

• 현안문제

- 대부분 소량, 소액 품목으로 경제성 결여
- 기술인력 유지를 위한 최소 인력 운영
- 대정부 건의
- 화생방 위협에 대비한 생산공장의 절대적 존속 및 유지

* 南宮 均 아세아자동차 상무이사

• 현안문제

- 물량 대폭 감소시 군수전용라인 유지 불가
- 多품종, 少量생산으로 협력업체 생산기피
- 戰時 임무고지랑 생산대응 차질(우려)
- 대정부 건의
- 방산 전용시설 및 필수인력 유지를 위한 최소물량 보장
- 선·착수금 지급 확대 및 금융지원

제3부 : 방산업체 현안문제 및 대정부 건의

* 李 大 遠 삼성항공社長



방산업체가 국방부가 운영하는 기업과 같다는 측면에서 적어도 年1회 이상 국방정책, 예산 편성 등의 내용으로 업체대표들과의 자리를 마련해주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발표내용은 방산경영에 적절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현행 방산업체는 국가방위의 기술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방산시설 및 인력유지를

위한 최소물량의 보장과 함께 방산 長期소요 물량의 변경은 지양(止揚)되어야 하겠습니다.

* 安 致 瀚 금성정밀社長



국내 방산업계는 고도정밀무기 연구개발기반이 취약하며, 선진국의 핵심기술이전 기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국방연구개발 투자비의 선진국 수준으로의 확대(2000년대 이전 5%수준)와 함께 연구개발투자 정책이 장기적이고도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국산화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하겠으며, 국산화 성공시 장기적인 이익 보장과 함께 조달물량의 보장과 국산개발자금 지원 확대 등 국산화 개발 유인제도가 확대 시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함께 업체가 개발한 총투자비용을 보상받을수 있도록 원가보상제도가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 趙 成 吉 제일정밀社長



재래식 병기류는 대부분 국산화된 품목으로서, 축적된 방산기술의 상당부분은 민수산업에 응용가능한 共用기술이므로, 유희 방산시설을 최대한 활용할수 있도록 시장창출과 함께 기술개발등에 필요한 조세 및 금융상의 지원시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3년부터는 早期계약이 체결될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라며, 조기계약이 추진되어도 체결시까지 사전생산이 불가피함에 비추어, 방산특조법령에 제도화될수 있도록 조치를 희망합니다. (泰)

전환기의 어려운 상황에서 열린 이번 産·官 방산정책간담회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 등은 誌面과 保安관계상 게재할수 없음을 諒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